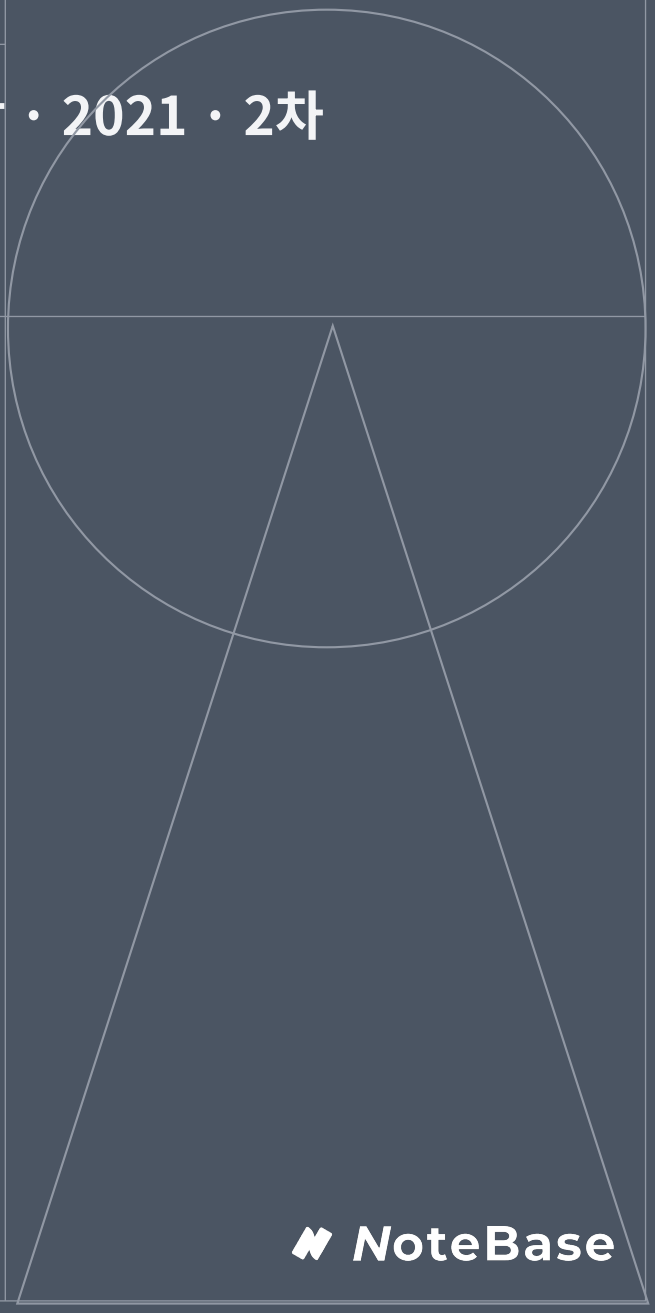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1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1 · 2차

문 1. 매슬로우(A. Maslow)가 제안한 욕구 위계의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① A는 홍수로 집이 잠기는 재난으로 인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한다.

② B는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다.

③ C는 가족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번 테니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한다.

④ D는 선배로부터 환영받는 회원이 되고 싶어 새로 가입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는 아래에서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배열된다. 이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로, 각 선지의 상황이 위계 중 어느 단계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1단계 생리적 욕구=의식주·수면 등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이다. 2단계 안전 욕구=신체적·정서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보호를 추구하는 욕구이다.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집단에 속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이다. 4단계 존중의 욕구=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이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는 재난 상황의 대피소에서 벗어나 신체적 위협과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므로 이는 2단계 안전 욕구에 해당한다.
② X: B는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기 고유의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
③ X: C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성적(성취)을 거두고자 하므로, 이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4단계 존중의 욕구에 해당한다.
④ O: D는 동아리에서 선배들에게 환영받는 회원, 즉 그 집단에 소속되어 받아들여지는 구성원이 되고자 활동에 열심인 것이므로, 이는 집단에 속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맺고자 하는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 욕구로, 소속 욕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②는 '잠재력 탐색'이라는 표현 때문에 존중 욕구로 오인하기 쉬우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는 점에서 자아실현 욕구임에 유의해야 한다. ③은 '좋은 성적'이라는 성취 결과에 주목하면 자아실현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이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자랑스러움)에 있으므로 존중 욕구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 속 인물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생명·신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하면 안전 욕구, 집단에 속해 함께 어울리고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 타인의 인정·칭찬·성취를 통한 자기 가치 확인을 원하면 존중 욕구,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자신의 잠재력과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슬로우 5단계를 '생-안-소-존-자'(생리-안전-소속과 애정-존중-자아실현)로 순서를 외워 두고, 각 단계의 핵심어를 '생존/안정/소속·인정(타인 기준)/존중·성취(타인 기준)/잠재력 실현(자기 기준)'으로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2. 투사적 기법의 성격검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CPI)
ㄴ. NEO-성격검사(NEO-PI)
ㄷ. 로르샤흐(Rorschach) 잉크 반점 검사
ㄹ. 주제 통각 검사(TAT)
ㅁ.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MBTI)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성격검사를 투사적(projective) 기법과 객관적(자기보고식)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투사적 기법은 모호하고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여 수검자가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고, 그 반응 속에 내재된 무의식적 동기·욕구·갈등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반면 객관적 기법은 표준화된 문항에 '예/아니오'나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채점 기준이 명확하고 구조화되어 있다.

핵심 개념

투사적 검사=비구조화된 모호한 자극(잉크반점, 애매한 그림) 제시 → 자유반응 해석, 대표적으로 로르샤흐 검사와 주제통각검사(TAT)가 있다. 객관적 검사=구조화된 문항과 표준화된 채점체계를 사용, 캘리포니아 성격검사(CPI), NEO 성격검사(NEO-PI), 마이어스-브릭스 유형검사(MBTI)가 이에 속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CPI) — X. 다수의 자기보고식 문항에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표준화된 객관적 성격검사이다.
ㄴ. NEO-성격검사(NEO-PI) — X. 5요인(Big Five)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구조화된 객관적 검사이다.
ㄷ. 로르샤흐(Rorschach) 잉크 반점 검사 — O. 좌우대칭의 모호한 잉크반점을 제시하고 무엇으로 보이는지 자유롭게 반응하게 하는 대표적인 투사적 기법이다.
ㄹ. 주제 통각 검사(TAT) — O. 모호한 상황이 그려진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만들어보게 하여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파악하는 투사적 기법이다.
ㅁ.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MBTI) — X. 문항에 대한 선택형 응답을 통해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자기보고식 객관적 검사이다.
따라서 투사적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ㄷ, ㄹ이며 정답은 ②이다.

오답 포인트

①(ㄴ, ㄷ), ③(ㄱ, ㄴ, ㄹ), ④(ㄴ, ㄷ, ㅁ)은 모두 객관적 검사인 ㄱ·ㄴ·ㅁ 중 하나 이상을 투사적 기법으로 잘못 포함시킨 오답이다. 검사 이름에 '성격'이나 '유형'이 들어간다고 해서 투사적 기법인 것은 아니며, 자극의 구조화 정도와 반응 방식(자유연상형 대 선택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검사명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자극이 모호하고 반응이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모호한 그림·잉크반점을 보고 이야기하거나 연상하게 하면 투사적 기법(로르샤흐, TAT, 문장완성검사, 그림검사 등)이고, 표준화된 문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응답하면 객관적 기법(CPI, NEO-PI, MBTI, MMPI 등)이다.

암기 포인트

투사적 기법 대표 2종=로르샤흐 잉크반점 검사, 주제통각검사(TAT). 객관적 기법 대표 3종=CPI, NEO-PI, MBTI. 이 문항의 다섯 보기는 이 다섯 검사를 그대로 대응시켜 외워두면 된다.

NoteBase

문 3.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어떤 무뢰한에게 희롱당하고 있었지만, 버스 안에 있던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피해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① 근접성 효과
② 유사성 효과
③ 방관자 효과
④ 사회적 태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에 목격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묘사한다. 이 문항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심리학 개념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핵심 단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부분으로, 이는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문장이다.

핵심 개념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는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분산되면서, 오히려 어느 누구도 나서서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목격자가 한 명뿐일 때는 그 사람이 도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옅어진다. 이 개념은 1964년 미국에서 발생한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계기로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근접성 효과와 유사성 효과는 대인 매력이나 호감 형성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서로 가까이 있거나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내용이며 도움 행동의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은 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할 때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는 현상으로, 과제 수행의 노력 투입에 관한 개념이지 위기 상황에서의 도움 행동 여부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근접성 효과 → X,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다는 대인 매력 이론의 개념으로, 제시문의 도움 행동 감소 현상과 무관하다.
② 유사성 효과 → X, 자신과 태도·배경이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대인 매력 이론의 개념으로, 제시문의 현상과 무관하다.
③ 방관자 효과 → O, 목격자 수가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 도움 행동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④ 사회적 태만 → X, 집단 과제 수행 시 개인의 노력 투입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움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제시문의 상황과는 다른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사회적 태만과 방관자 효과를 혼동하기 쉬운데, 두 개념 모두 "집단 속에서 개인의 몫이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만 설명하는 대상이 다르다. 사회적 태만은 함께 힘을 합쳐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이 쏟는 노력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고, 방관자 효과는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목격자 수에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것이다. 제시문처럼 "돕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방관자 효과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사고·범죄·위급 상황에서 "목격자가 많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서술과 함께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설명이 나오면 방관자 효과로 판단한다. 반대로 "같이 작업했더니 개인의 노력이 줄었다"는 서술이 나오면 사회적 태만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방관자 효과 = 목격자 수↑ → 책임감 분산↓ → 도움 행동↓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계기). 근접성·유사성 효과는 호감·매력 형성 개념, 사회적 태만은 집단 작업에서 노력 감소 개념으로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4. A가 드러내는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심리장애는?

A는 높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A는 특정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곤 한다.

① 강박장애
② 공황장애
③ 사회공포증
④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례에 제시된 두 가지 요소, 즉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침습적 생각(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과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숫자를 세는 행동)을 강박장애의 핵심 진단 요소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강박장애는 강박사고(obsession)와 강박행동(compulsion)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침습적이며 원치 않는 생각·충동·심상으로, 본인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떨쳐내기 어렵다. 강박행동은 그 불안을 줄이거나 특정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나 심적 활동(손 씻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이며, 실제 위협과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공포 발작(공황발작)과 그 재발에 대한 지속적 걱정이 핵심이며 반복적 사고-행동 쌍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공포증은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가 핵심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재경험(플래시백, 악몽), 회피, 과각성 등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며, 사례에는 특정 외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강박장애: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강박사고에 해당하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숫자를 세는 행동은 강박행동에 해당한다. 두 요소가 모두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강박장애가 가장 적절하다.
② 공황장애: 사례에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신체적 공포 발작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반복적인 생각과 그것을 완화하는 행동이라는 강박장애의 전형적 패턴만 나타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회공포증: 타인의 부정적 평가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포는 사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제로 겪은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회피·과각성 반응이 사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특정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와 이를 완화하는 행동이라는 강박장애의 구조만 나타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사례를 단순히 '불안이 심한 상태'로만 보고 공황장애나 사회공포증처럼 이름이 익숙한 불안장애를 고르면 오답이다. 핵심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강박사고)'과 '그 생각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반복 행동(강박행동)'이라는 두 요소가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 짝 구조가 보이면 다른 불안장애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강박장애를 검토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사로잡혀 있다'와 '그것을 줄이기 위해 ~을 반복한다'는 두 문장이 짝으로 제시되면 강박장애를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반대로 급작스러운 신체 증상 발작이면 공황장애, 특정 외상 사건의 재경험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평가에 대한 공포면 사회공포증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강박장애 = 강박사고(침습적·반복적 생각) + 강박행동(불안 완화용 반복 행동)의 짝 구조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5. 색채 시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립과정이론은 색채잔상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② 삼원색이론은 빛의 삼원색 각각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수용기가 있음을 제안했다.

③ 대립과정이론은 두 가지 수용기, 적-녹, 청-황 수용기가 있음을 제안했다.

④ 색채시각 과정에서 삼원색이론과 대립과정이론은 현재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삼원색이론(Young-Helmholtz 이론)과 대립과정이론(Hering 이론)이 색채시각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두 이론이 실제로 어떤 수용기·채널 구조를 제안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대립과정이론이 제안한 채널의 개수를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핵심 개념

삼원색이론은 망막의 원추세포(추상체) 수준에서 빛의 삼원색(적, 녹, 청)에 각각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수용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립과정이론은 그보다 상위 단계(신경절세포 등)에서 색채 정보가 대립적인 쌍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하며, 그 채널은 적-녹, 청-황 두 가지 색채 채널에 더해 흑-백(명암) 채널까지 합쳐 총 세 가지이다. 즉 대립과정이론의 채널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이며, 이 세 번째 흑-백 채널이 밝기(명도) 대립을 담당한다. 현재는 두 이론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원추세포 단계에서는 삼원색이론이, 그 이후 신경 처리 단계에서는 대립과정이론이 작동하는 것으로 통합되어 이해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대립과정이론은 하나의 색을 오래 응시한 후 반대색의 잔상(예: 빨간색을 보다가 녹색 잔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대립되는 두 색 채널 중 한쪽이 피로해지면 반대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② O — 삼원색이론은 빛의 삼원색인 적색광, 녹색광, 청색광 각각에 최대로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원추세포(수용기)가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옳은 설명이다.

③ X — 대립과정이론이 제안한 채널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이다. 적-녹, 청-황의 색채 대립 채널 두 가지에 더해, 명암을 담당하는 흑-백 대립 채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대립과정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두 가지 수용기'라는 표현이 흑-백 채널을 빠뜨려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④ O — 현재의 색채시각 이론은 삼원색이론과 대립과정이론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원추세포 단계에서는 삼원색 원리가, 그 이후의 신경 처리 단계(예: 신경절세포)에서는 대립과정 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통합해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대립과정이론의 채널 개수를 적-녹, 청-황 두 가지로만 기억하면 이 문제를 틀리게 된다. 흑-백(명암) 채널까지 포함해 총 세 가지 대립 채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또한 삼원색이론과 대립과정이론을 서로 경쟁하는 양자택일 이론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두 이론은 색채시각 경로의 서로 다른 단계를 설명하는 상호보완적 이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대립과정이론의 수용기·채널 개수가 나오면 반드시 '세 가지(적-녹, 청-황, 흑-백)'인지 확인한다. '두 가지'라고만 되어 있으면 흑-백 채널이 빠진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삼원색이론은 원추세포 수준, 대립과정이론은 그 이후 신경 처리 수준이라는 단계 구분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삼원색이론(Young-Helmholtz) = 원추세포 3종(적·녹·청 반응). 대립과정이론(Hering) = 대립 채널 3종(적-녹, 청-황, 흑-백). 두 이론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색채시각 경로의 서로 다른 단계를 설명하는 상호보완 관계이다.

NoteBase

문 6. A가 한 조언의 배경이 되는 것은?

A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자 '입술이 아닌 어금니 안쪽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펜을 물고' 있으라고 조언하였다. 그 친구는 조언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했더니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다고 A에게 말하였다.

① 안면 피드백 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
②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③ 체계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
④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특정 신체(표정 근육) 자세를 취하게 하는 조언이 어떤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는다. 핵심 단서는 '입술이 아닌 어금니 안쪽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펜을 물게' 했다는 부분이다. 펜을 어금니 쪽에 물면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도 광대근(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되어 미소를 지을 때와 비슷한 안면 근육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는 표정(안면 근육 활동)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정서 경험이 뒤따라 변화한다는 이론, 즉 안면 피드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험 조작 방법이다.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하면 정서적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보고되어 왔으므로, 친구가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말한 결과는 이 가설과 부합한다.

선지별 해설

① 안면 피드백 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 - O. 안면 근육의 움직임(표정)이 정서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로, 펜을 어금니 사이에 물게 하여 웃는 표정과 유사한 근육 상태를 만들면 실제로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거나 부정적 정서(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지문의 조언과 결과가 정확히 이 원리를 보여준다.
②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 X. 정서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신체(안면 근육) 자세 자체가 정서를 유발하는 지문의 상황과는 방향이 다르다. 지문에는 상황에 대한 해석 변화가 아니라 신체 자세 조작이 제시되어 있다.
③ 체계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 - X.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이완 상태를 짝지어 단계적으로 노출시켜 불안 반응을 점차 약화시키는 행동치료 기법이다. 지문에는 자극 위계에 따른 단계적 노출이나 이완 훈련 절차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 - X. 만족스러운 결과가 뒤따르는 행동은 강화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뒤따르는 행동은 약화된다는 손다이크의 학습 원리이다. 지문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에 따른 행동 빈도 변화가 아니라, 특정 근육 자세 자체가 정서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문에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학습이나 인지적 대처와 관련된 이론(②, ③, ④)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이 문항의 진짜 단서는 결과가 아니라 조언의 방법(입술이 아닌 어금니 사이에 펜을 물게 한 것)에 있다. 입술로 펜을 물면 오히려 찡그린 표정에 가까운 근육이 쓰이고, 어금니 쪽으로 물면 웃는 표정에 가까운 근육이 쓰인다는 차이를 놓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특정 신체 부위(특히 얼굴 근육)의 자세나 움직임을 먼저 조작하고 그 뒤에 정서 상태의 변화가 뒤따르는 구조라면 안면 피드백 가설을 우선 의심한다. 반대로 상황에 대한 해석·평가가 먼저 언급되면 인지평가이론, 자극에 이완을 짝짓는 단계적 절차가 나오면 체계적 둔감화, 행동 뒤에 보상/처벌이 따르는 구조라면 효과의 법칙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면 피드백 가설: 표정(신체 반응)이 먼저 만들어지면 정서가 그 표정에 맞춰 변화한다. 펜을 입술로 물기(찡그림 유사)와 어금니로 물기(미소 유사)의 차이로 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실험이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문 7.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영아 H는 에인스워스(M. Ainsworth)의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가?

◯ H는 엄마와 함께 있어도 엄마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엄마가 낯선 방에 H를 혼자 남겨 두고 나가도 H는 별로 울거나 보채지 않는다.
◯ H는 엄마가 다시 돌아와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① 안정 애착
② 저항 애착
③ 혼란 애착
④ 회피 애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에인스워스(M.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Strange Situation)에서 나타나는 애착 유형별 행동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영아 H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엄마가 낯선 방에 혼자 두고 나가도 울거나 보채지 않으며, 엄마가 돌아와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이 세 가지 행동 특징을 종합해 애착 유형을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안정 애착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엄마가 떠나면 불안해하며 울거나 찾고,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다가가 쉽게 안정을 되찾는다.
저항(양가) 애착은 엄마가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며 탐색을 잘 하지 못하고, 분리 시 매우 심하게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엄마가 돌아오면 다가가면서도 화를 내거나 밀쳐내는 등 양가적으로 반응하며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회피 애착은 엄마와 함께 있어도 엄마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 놀이에 몰두하며, 분리 시에도 별로 울거나 보채지 않고, 엄마가 돌아와도 다가가거나 반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혼란(비조직화) 애착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다가가다가 갑자기 얼어붙거나 뒷걸음질치는 등 접근과 회피가 뒤섞인 모순되고 비일관적인 행동을 보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안정 애착: X. 안정 애착 영아는 엄마가 있을 때 엄마를 안전기지로 삼아 활발히 탐색하고, 분리 시 뚜렷한 불안 반응을 보이며, 재회 시 적극적으로 다가가 위안을 얻는다. H는 함께 있을 때도 무관심하고 분리 시에도 별 반응이 없으며 재회 시에도 무관심하므로 안정 애착의 특징과 다르다.
② 저항 애착: X. 저항 애착 영아는 분리 시 격렬하게 울고 고통스러워하며, 재회 시 접근과 분노가 뒤섞인 강한 정서 반응을 보인다. H는 분리 시 울거나 보채지 않고 재회 시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므로 저항 애착의 특징과 반대된다.
③ 혼란 애착: X. 혼란 애착의 핵심은 재회 시 접근과 회피가 뒤섞인 모순되고 방향성 없는 행동이다. H는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분리될 때, 재회할 때 모두 일관되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므로 혼란 애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회피 애착: O. H는 엄마와 함께 있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분리되어도 울거나 보채지 않으며, 재회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엄마의 존재 여부에 무관하게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고 무시하는 회피 애착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H가 잘 울지 않고 얌전해 보인다고 해서 안정 애착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안정 애착은 무반응이 아니라 엄마를 안전기지로 활용하는 적극적 탐색과 재회 시의 반가운 접근이 핵심이다. 또한 겉으로 얌전한 모습만 보고 넘기지 말고, 엄마의 존재·부재·재회 세 국면 모두에서 일관되게 무관심하다는 점이 회피 애착을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상황 실험 문제는 분리 전(함께 있을 때), 분리 시, 재회 시 세 국면에서의 반응을 각각 표시해 표로 정리한 뒤 유형을 매칭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세 국면 모두 '무관심·무반응'이면 회피, 분리 시 격렬히 울고 재회 시 양가적(다가가면서 화냄)이면 저항, 재회 시 접근과 회피가 뒤섞여 모순적이면 혼란, 분리 시 불안해하다 재회 시 반갑게 안정되면 안정 애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피 애착=있으나 없으나 무관심(함께 있어도 무주의, 헤어져도 무반응, 돌아와도 무관심). 저항 애착=늘 불안하고 재회 시 화내며 매달림(양가적). 혼란 애착=재회 시 접근과 회피가 뒤섞인 모순 행동. 안정 애착=적극 탐색+분리 시 불안+재회 시 반가운 접근과 빠른 진정.

NoteBase

문 8.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각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저장된 정보는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도 오랫동안 남는다.
ㄴ. 단기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되뇌기(rehearsal) 없이 15 ~ 20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망각된다.
ㄷ.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에 넣는 데 뇌의 해마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H.M. 환자 연구로 밝혀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이라는 기억의 3단계 모형에서 각 단계의 용량, 지속시간, 되뇌기의 역할, 그리고 해마 손상 연구(H.M. 환자)가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ㄱ~ㄷ 각 진술의 진위를 가려 옳은 것만 모은 조합을 고르는 문제다.

핵심 개념

감각기억은 용량이 매우 크지만(제한적이지 않고) 정보가 아주 짧은 시간(1초 내외의 영상기억, 수 초 내의 음향기억) 안에 사라진다. 단기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며(약 7±2개), 되뇌기(rehearsal)가 없으면 정보는 약 15~20초 정도 안에 빠르게 소멸한다. 장기기억으로의 부호화(공고화)에는 뇌의 해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해마와 인접 측두엽이 제거된 H.M. 환자가 새로운 사실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심각한 순행성 기억상실을 보인 연구로 밝혀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감각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저장된 정보는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도 오랫동안 남는다. → X. 감각기억은 용량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정보가 처리되지 않으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다는 점 모두 진술과 반대다. '용량이 제한적' → '용량이 매우 크다', '오랫동안 남는다' →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다'로 고쳐야 옳다.
ㄴ. 단기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되뇌기(rehearsal) 없이 15~20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망각된다. → O. 되뇌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기억 속 정보는 대략 15~20초 안에 급격히 사라진다는 것은 단기기억의 지속시간에 관한 대표적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ㄷ. 새로운 정보를 장기기억에 넣는 데 뇌의 해마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H.M. 환자 연구로 밝혀졌다. → O.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이 제거된 H.M. 환자는 수술 이후 새로운 사건이나 사실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하지 못하는 순행성 기억상실 증상을 보였고, 이 사례는 해마가 새로운 장기기억 형성에 핵심적임을 보여 주는 대표 연구로 꼽힌다.

오답 포인트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의 용량·지속시간을 서로 뒤바꿔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감각기억은 '용량 크고 지속시간 짧음', 단기기억은 '용량 작고(약 7±2개) 되뇌기 없이는 지속시간 짧음(약 15~20초)'으로 구분해야 한다. ㄱ처럼 감각기억을 '용량이 작고 정보가 오래 남는다'고 서술하면 두 특성이 모두 반대로 뒤바뀐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진술이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 중 어느 단계를 말하는지 확인한 뒤, 그 단계의 용량과 지속시간이 맞게 짝지어졌는지를 본다. 되뇌기(rehearsal)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기기억 관련 진술임을 바로 알아채고 15~20초 안팎의 짧은 지속시간을 떠올린다. H.M. 환자가 언급되면 무조건 '해마-장기기억 형성'을 연결 짓는다.

암기 포인트

감각기억=큰 용량·매우 짧은 지속시간. 단기기억=작은 용량(7±2)·되뇌기 없으면 15~20초 내 망각. 장기기억 형성=해마 핵심 역할, H.M. 환자 연구로 입증.

NoteBase

문 9. 다음 사례에서 A가 친구에게 사용한 설득 기법은?

공기 청정기 회사의 영업 사원 A는 친구에게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팔지 못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아주 값비싼 공기 청정기의 구매를 부탁한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자 영업 사원 A는 그보다 훨씬 값이 싼 다른 공기 청정기를 보여 주면서 구매를 요청하자 친구는 이를 구매한다.

① 아부하기 기법(ingratiation technique)

②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door-in-the-face technique)

③ 문 안에 발 넣기 기법(foot-in-the-door technique)

④ 낮은 공 기법(low ball techniqu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심리학의 순차적 요청 설득 기법 네 가지(아부하기, 면전에서 문 닫기, 문 안에 발 넣기, 낮은 공)를 구체적 사례에 대응시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에서 요청의 순서(크다→작다 또는 작다→크다)와 요청 사이에 상대의 거절·수락이 끼어드는지가 기법을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된다.

핵심 개념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처음에 매우 크고 부담스러운 요청을 해서 상대가 거절하게 한 뒤, 그보다 작은(원래 원하던) 요청을 제시하면 상대가 죄책감이나 상호성 규범 때문에 그 작은 요청은 수락하기 쉬워지는 현상이다. / 문 안에 발 넣기 기법=반대로 작고 사소한 요청을 먼저 수락하게 한 뒤 점점 더 큰 요청을 제시하는 기법으로, 첫 요청 수락이 자기지각을 바꿔 이후 요청도 수락하게 만든다. / 낮은 공 기법=먼저 유리한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낸 뒤, 그 결정에 따른 이행 단계에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데도 이미 한 약속(commitment) 때문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기법이다. / 아부하기 기법=칭찬이나 호감 표현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어 요청을 수락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아부하기 기법(ingratiation technique) — X. 사례에서 A는 칭찬이나 호감 표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값비싼 제품을 먼저 요청했으므로 아부하기와는 무관하다.
②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door-in-the-face technique) — O. A는 처음에 아주 값비싼 공기 청정기 구매라는 크고 부담스러운 요청을 했고, 친구가 이를 거절하자(면전에서 문을 닫자) 그보다 훨씬 값이 싼 제품으로 요청 수준을 낮추어 다시 제안했다. 요청이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거절이 있다는 점이 이 기법의 전형적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③ 문 안에 발 넣기 기법(foot-in-the-door technique) — X. 이 기법은 작은 요청을 먼저 수락시킨 뒤 더 큰 요청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사례는 반대로 큰 요청에서 작은 요청으로 이어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낮은 공 기법(low ball technique) — X. 이 기법은 상대의 승낙을 먼저 받아낸 뒤 조건을 더 불리하게(대개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데, 사례에서는 친구가 처음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제시된 조건은 오히려 더 유리한(값싼) 것이므로 낮은 공 기법의 구조와 다르다.

오답 포인트

요청의 순서(크다→작다 vs 작다→크다)와 중간에 거절이 있는지 승낙이 있는지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문 안에 발 넣기(③)는 작은 요청을 먼저 수락시키는 것이라 순서가 반대이고, 낮은 공(④)은 애초에 승낙을 받아낸 뒤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 사례의 '거절 후 재요청'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요청이 몇 번 등장하는지, 각 요청의 크기(부담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이에 상대가 거절했는지 수락했는지를 순서대로 표시해 본다. '큰 요청 실패 후 작은 요청 성공'이면 면전에서 문 닫기, '작은 요청 성공 후 큰 요청'이면 문 안에 발 넣기, '요청 성공 후 조건 악화'이면 낮은 공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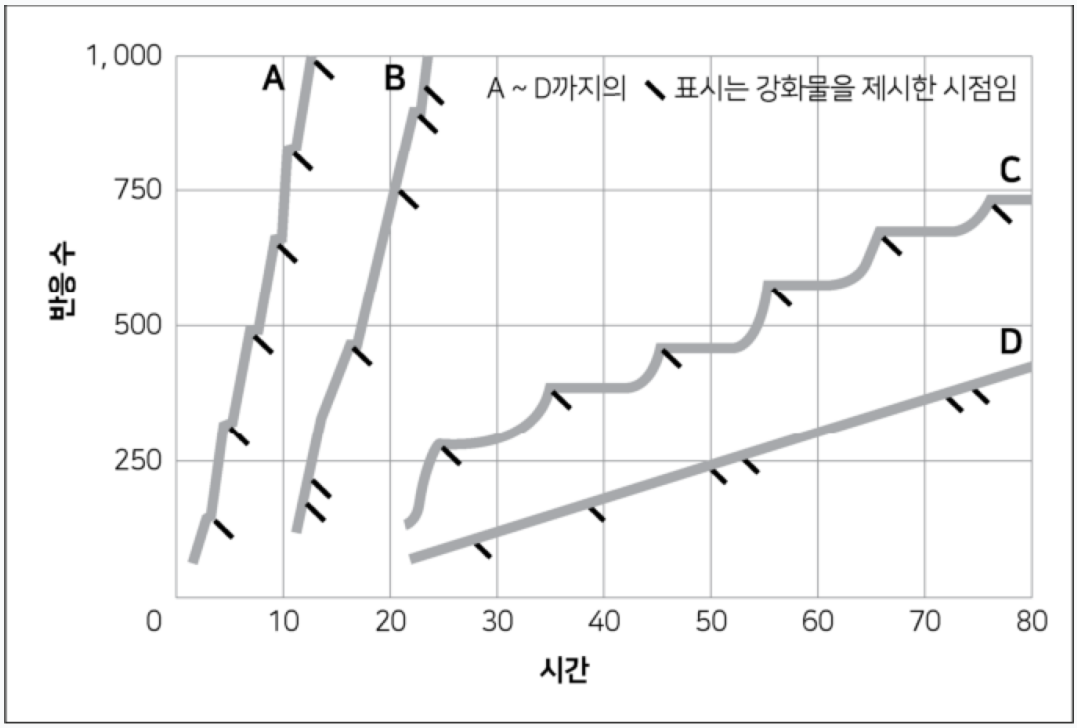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면전에서 문 닫기: 크게 불러서 거절당하고(문 닫힘) 작게 다시 부탁한다. 문 안에 발 넣기: 작게 시작해 발을 들이밀고 점점 크게 요구한다. 낮은 공: 싸게 낚아 승낙받고 나중에 값을 올린다. 아부하기: 칭찬으로 호감을 사서 부탁한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가) ~ (라) 행동과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A ~ D 강화계획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취업 준비 중인 길동이는 편의점에서 (가) 즉석 복권을 사서 긁어 보았다. 며칠 전에는 당첨돼서 좋았는데, 이번엔 꽝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 인터넷 쇼핑에서 매시간 정시부터 5분간만 판매되는 타임 세일 상품을 사려고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다. 이 시간대에 접속이 몰리지만, 접속만 되면 그 상품을 살 수 있었고, 광속 클릭으로 구매에 성공했다. 세일 상품을 장터에 되팔면 용돈을 벌 수 있으니, 다음번 세일 상품도 목표로 삼았다. 성공을 기뻐하며 비대면 수업에 접속했는데 (다)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을 골라 쉬운 돌발 퀴즈를 주고 이를 맞혀야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업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수업을 받았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얼마 전 취업했다던 영수의 전화를 받았다. 영수는 (라) 할당량만큼 상품을 팔아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전화했다면서 하나만 더 팔면 할당량을 채울 수 있으니 내게 사 달라고 말했다.



① (가): B, (나): D, (다): A, (라): C

② (가): B, (나): C, (다): D, (라): A

③ (가): C, (나): B, (다): D, (라): A

④ (가): D, (나): C, (다): A, (라): B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조작적 조건형성의 네 가지 강화계획(고정비율 FR, 변동비율 VR, 고정간격 FI, 변동간격 VI)이 누적기록 그래프에서 어떤 반응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구분하는 문제이다. (가)~(라)는 각각 하나의 강화계획을 빗댄 일화이고, A~D는 그 강화계획들의 전형적인 누적반응 곡선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먼저 A~D 곡선의 모양부터 분류한다. A는 초반 구간에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되 강화(⊠ 표시) 직후 아주 짧게 반응이 주춤하는 계단형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으로, 반응을 일정 개수 채울 때마다 강화가 오는 고정비율(FR)의 특징인 짧은 강화 후 휴지(post-reinforcement pause)를 보여준다. B는 A보다도 더 가파르고 매끄러운 직선으로, 강화 후 멈춤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횟수만큼 반응해야 강화가 오는 변동비율(VR)의 특징으로, 강화계획 중 가장 빠르고 꾸준한 반응률을 만든다. C는 완만한 상승과 급격한 상승이 번갈아 나타나는 계단(스캘럽) 모양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강화가 가능한 고정간격(FI)에서 강화 직후에는 반응이 뜸하다가 다음 강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반응이 몰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D는 굴곡 없이 전 구간에서 완만하고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직선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간격마다 강화가 오는 변동간격(VI)에서 나타나는 낮고 꾸준한 반응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곡선을 FR=A, VR=B, FI=C, VI=D로 확정한 뒤, (가)~(라)를 강화계획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된다. (가) 즉석 복권은 살 때마다 당첨 여부가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반응(구매) 횟수가 변동적으로 강화되는 VR이다. (나) 인터넷 쇼핑 타임 세일은 매시간 정시라는 고정된 시각이 되어야만 구매(강화)가 가능하므로, 정시가 다가올수록 접속 시도가 몰리고 직후에는 뜸해지는 FI이다. (다) 돌발 퀴즈는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주어지므로 수업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고 꾸준히 집중해야 하는 VI이다. (라) 판매 할당량 채우기는 정해진 판매 개수(비율)를 채워야 보너스(강화)를 받는 FR이다.

선지별 해설

① (가) B, (나) D, (다) A, (라) C — X. (가)는 VR(B)이 맞지만 (나)는 FI(C)여야 하는데 D(VI)로, (다)는 VI(D)여야 하는데 A(FR)로, (라)는 FR(A)여야 하는데 C(FI)로 잘못 연결되어 있다.
② (가) B, (나) C, (다) D, (라) A — O. (가) 복권=VR=B, (나) 정시 타임세일=FI=C, (다) 돌발 퀴즈=VI=D, (라) 할당량 판매=FR=A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다.
③ (가) C, (나) B, (다) D, (라) A — X. (다), (라)는 맞게 연결되었으나 (가)는 VR(B)이어야 하는데 FI(C)로, (나)는 FI(C)여야 하는데 VR(B)로 서로 뒤바뀌어 있다.
④ (가) D, (나) C, (다) A, (라) B — X. (나)는 FI(C)로 맞지만 (가)는 VR(B)이어야 하는데 VI(D)로, (다)는 VI(D)여야 하는데 FR(A)로, (라)는 FR(A)여야 하는데 VR(B)로 잘못 연결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가장 흔한 오답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A와 B처럼 둘 다 가파른 곡선을 같은 강화계획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두 곡선 모두 반응률이 높지만, 강화 직후 짧은 멈춤이 반복되면 FR, 멈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면 VR이라는 차이를 봐야 한다. 둘째, (나)와 (다)를 혼동하는 것이다. (나)는 강화 가능 시점이 '매시간 정시'로 고정되어 있어 FI이고, (다)는 돌발 퀴즈처럼 강화 가능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VI이다. '고정된 시각에 맞춰 몰리는 행동'과 '언제 올지 몰라 꾸준히 긴장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적기록 그래프 문제가 다시 나오면, 먼저 곡선의 전반적 기울기(반응률의 높고 낮음)로 비율계획(FR·VR, 대체로 가파름)과 간격계획(FI·VI, 대체로 완만함)을 크게 나눈다. 그 다음 강화 직후에 짧은 멈춤(계단형 굴곡)이 있으면 고정형(FR 또는 FI), 멈춤 없이 매끄러우면 변동형(VR 또는 VI)으로 좁힌다. 마지막으로 사례 속 강화 조건이 '정해진 횟수·정해진 시간'인지 '예측 불가능한 횟수·시간'인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FR·VR·FI·VI 중 하나를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비율(FR)=반응 수를 정해진 개수만큼 채워야 강화, 강화 직후 짧은 멈춤 후 다시 급상승. 변동비율(VR)=반응 수가 예측 불가능하게 강화되어 멈춤 없이 가장 빠르고 꾸준하게 상승. 고정간격(FI)=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강화되어 강화 직후 반응이 뜸하다가 다음 강화가 가까워질수록 급증하는 계단(스캘럽) 모양. 변동간격(VI)=예측 불가능한 시간마다 강화되어 낮고 완만하지만 꾸준한 반응률을 유지.

NoteBase

문 11. 정신물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물리학은 물리적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심리적 경험에 미치는 효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② 차이역은 자극에서 겨우 탐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

③ 절대역은 관찰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수준을 의미한다.

④ 정신물리학 접근 중 신호탐지이론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한 개인의 자극 민감도와 반응 기준 모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의 정의와 핵심 개념인 절대역, 차이역, 신호탐지이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의 정의가 실제 개념과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핵심 개념

정신물리학은 물리적 자극의 강도와 그로 인한 심리적 경험(감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절대역(absolute threshold)은 자극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수준을 뜻하며, 통상 시행의 50퍼센트에서 탐지되는 자극 강도로 정의된다. 차이역(difference threshold, JND)은 두 자극 간 차이를 겨우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변화량을 뜻한다.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은 자극 탐지 여부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뿐 아니라 반응 기준(response criterion, 응답 편향)에도 함께 좌우된다고 설명하는 접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신물리학은 물리적 에너지(자극)와 그 에너지가 유발하는 심리적 경험(감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가 맞다.
② O: 차이역은 자극에서 겨우 탐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③ X: 절대역은 관찰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자극을 겨우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수준을 의미한다. 틀린 표현 '최대 에너지 수준' → 올바른 표현 '탐지 가능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준'.
④ O: 신호탐지이론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자극 민감도와 반응 기준 모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맞다.

오답 포인트

절대역과 차이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역은 '있다/없다'를 겨우 구별하는 최소 에너지, 차이역은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겨우 구별하는 최소 에너지 변화량이다. ③은 '최대'라는 단어로 절대역의 정의를 뒤집어 놓은 오답이므로, 절대역이 최소 탐지 에너지를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면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절대역, 차이역, 신호탐지이론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절대역=최소 탐지 에너지, 차이역=최소 탐지 가능한 변화량이라는 두 정의를 선지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 '최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절대역의 정의와 어긋나는지부터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역=최소 탐지 에너지, 차이역=최소 탐지 변화량, 신호탐지이론=민감도+반응 기준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2. S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스키너(B. F. Skinner)의 개념은?

S는 어쩌다가 머리를 안 감은 날 치른 시험의 성적이 매우 좋았다. 이후로 S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머리를 감지 않는다. 머리를 감지 않아야 성적이 좋을 것이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① 강화계획
② 미신행동
③ 변별
④ 일반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행동과 결과 사이에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우연히 시간적으로 인접해 나타난 결과 때문에 특정 행동이 강화되어 반복되는 현상, 즉 스키너의 미신행동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 알아보는 문항이다. S는 머리를 감지 않은 날 우연히 시험을 잘 봤을 뿐인데, 그 우연한 결과와 자신의 행동(머리를 감지 않음)을 인과관계로 잘못 연결지어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핵심 개념

미신행동(superstitious behavior)은 스키너가 비둘기 실험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특정 반응 뒤에 우연히 강화물이 뒤따르면 그 반응과 강화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없어도 유기체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해당 반응을 계속 반복하는 현상이다. 강화계획은 강화가 주어지는 빈도와 시점의 규칙(고정비율·변동비율·고정간격·변동간격 등)을 뜻하고, 변별은 특정 자극에서만 반응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자극에서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학습, 일반화는 훈련받은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강화계획(X) → 강화계획은 반응이 강화되는 빈도·간격의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S의 사례에는 강화 스케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우연한 1회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과 신념만 나타나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미신행동(O) → 머리를 감지 않은 것과 시험 성적 사이에는 실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우연히 한 번 좋은 성적을 받은 뒤 그 우연을 원인으로 오인해 같은 행동(머리를 안 감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전형적인 미신행동이다.
③ 변별(X) → 변별은 서로 다른 자극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도록 학습되는 것인데, 사례에는 자극 간 반응을 구분하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일반화(X) → 일반화는 훈련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사례는 유사 자극으로의 반응 확산이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과 신념에 따른 행동 반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강화계획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강화계획은 반응-강화 사이에 실제 수반 관계가 존재할 때 그 빈도나 시점의 규칙을 다루는 개념이고, 미신행동은 반응과 결과 사이에 실제 수반 관계가 없는데도 우연의 일치를 인과로 오인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변별과 일반화는 모두 자극 간의 유사성·차이에 반응이 달라지거나 확산되는 현상을 다루는 개념으로, 이 사례처럼 우연한 결과에 대한 오해로 행동이 굳어지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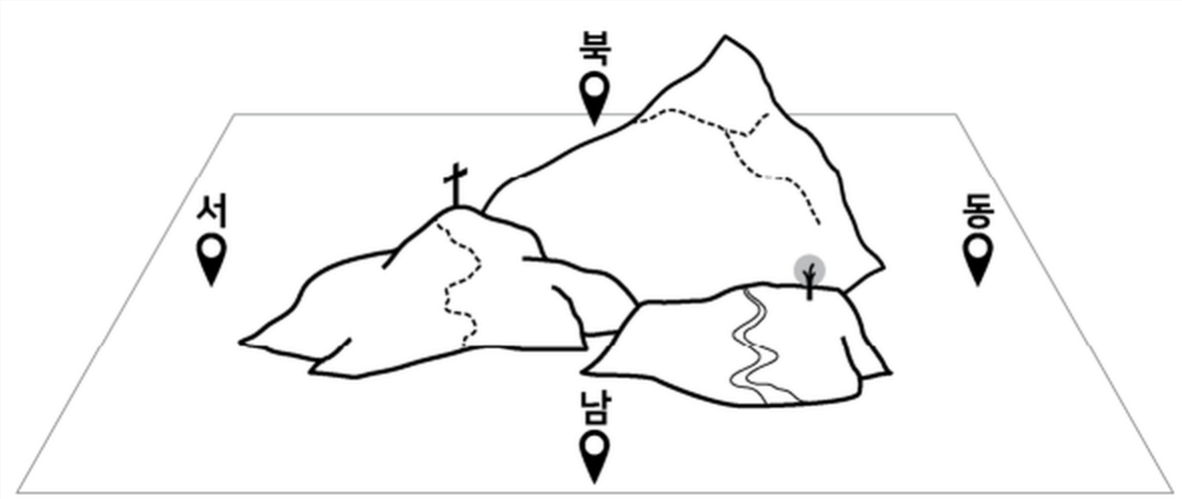
사례에서 행동과 결과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우연히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원인으로 착각해 행동을 반복한다는 서술이 나오면 미신행동이고, 강화가 주어지는 빈도나 패턴(예: 몇 번째 반응마다, 몇 분마다)이 핵심이면 강화계획, 자극에 따라 반응을 구분하면 변별, 유사 자극에도 반응이 확산되면 일반화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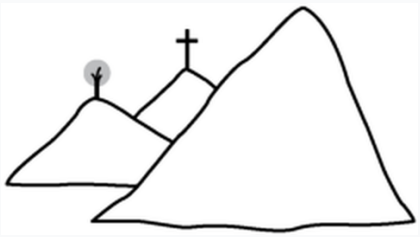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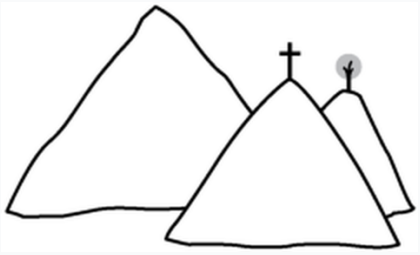
미신행동 = 우연한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 + 실제 인과관계 없음 + 행동 반복. '머리 안 감고 시험 잘 봄 → 이후 계속 안 감음' 같은 우연-반복 서술이 나오면 미신행동을 먼저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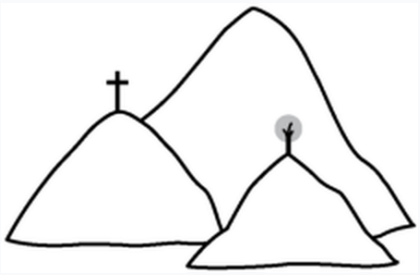
Note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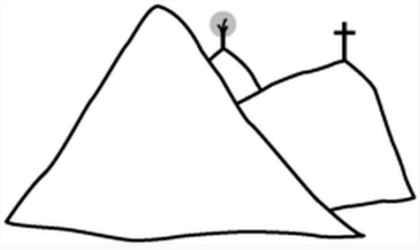
문 13. 다음 그림은 피아제(Piaget)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니어처 산의 모습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Y는 북쪽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있고, M은 서쪽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있다. M이 보는 산의 모습이 어떤지를 Y에게 물었다면 Y의 대답은?



① 

② 

③ 

④ 

NoteBas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피아제(Piaget)의 세 산 모형(three mountain task) 실험을 통해 전조작기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egocentrism)를 확인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핵심은 '실제로 M이 서쪽에서 보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Y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묻는다는 점이다. 자기중심적 사고 단계의 아동은 타인의 조망(관점)과 자신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M이 서쪽에서 보는 모습을 물어도 실제 서쪽 시점이 아니라 자신(Y)이 북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답으로 내놓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나무 표시 봉우리가 가장 작고 앞쪽, 십자가 표시 봉우리가 그 뒤에 겹치고, 표시 없는 가장 큰 봉우리가 맨 뒤(오른쪽)에 배치된 구도이다. 이는 Y 자신이 북쪽에서 보는 모습(가장 큰 봉우리가 가장 가깝고 크게 보이는 구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기중심적 대답이 될 수 없다.
② X: 표시 없는 가장 큰 봉우리와 십자가 표시 봉우리, 나무 표시 봉우리가 좌·중·우로 나란히 늘어서 있어 세 봉우리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펼쳐진 모습이다. 이는 실제 어느 한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는 원근 구도와 다르며, Y가 북쪽에서 실제로 보는 모습과도 다르다.
③ X: 십자가 표시 봉우리가 앞쪽에 가장 크게, 나무 표시 봉우리가 그 옆에 작게 겹쳐 있고 표시 없는 가장 큰 봉우리는 배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도이다. 이는 십자가 표시 봉우리 쪽(서쪽)에 가까이 다가가서 본 모습에 해당하며, 북쪽에 서 있는 Y 자신의 시야와 일치하지 않는다.
④ O: 표시 없는 가장 큰(가장 높은) 봉우리가 앞쪽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나무 표시 봉우리와 십자가 표시 봉우리가 그 좌우로 작게 겹쳐서 배치된 구도이다. 이는 북쪽에 서 있는 Y가 실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 즉 가장 큰 봉우리가 눈앞에 가장 가깝고 크게 보이며 십자가 표시·나무 표시 봉우리는 그 뒤쪽 좌우로 작게 물러나 보이는 구도와 일치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Y는 M에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추론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대답하므로, Y의 대답은 4번 그림이 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M이 서 있는 위치(서쪽)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여 답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나 문항이 묻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Y의 대답'이므로, 실제 서쪽 시점의 정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Y 자신의 시점(북쪽에서 본 모습)과 동일한 그림을 골라야 한다. ①·②·③은 각각 다른 배치(가장 큰 봉우리가 뒤에 있거나, 세 봉우리가 나란히 펼쳐지거나, 십자가 표시 봉우리가 앞에 가장 크게 나온 구도)로 Y 자신의 시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아동에게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을 물었을 때 그 아동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묻는 형식의 문제는, 실제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본 정확한 모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받은 아동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보는 모습과 동일한 그림'을 찾는 문제로 판단한다. 즉 정답은 항상 대답하는 사람(Y) 자신의 시점과 일치하는 그림이며, 실제 타인(M)의 시점과는 무관하다.

암기 포인트

피아제의 세 산 모형 실험은 전조작기 아동의 자기중심성(egocentrism)을 검증하는 대표 실험이다. 전조작기 아동은 타인의 조망과 자신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여, 타인이 실제로 보는 모습을 물어도 자신이 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답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4.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귀인은 자신의 행동,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원인에 관한 추론이다. 친구의 사업이 실패하였을 때 그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 (가)을 하게 되면 친구의 사업 수완 부족을 사업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나)을 할 때는 불경기를 사업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① (가): 기본적 귀인, (나): 방어적 귀인

② (가): 방어적 귀인, (나): 기본적 귀인

③ (가): 내적 귀인, (나): 외적 귀인

④ (가): 외적 귀인, (나): 내적 귀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귀인(attribution)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인지적 추론 과정이다. 이 문항은 귀인의 여러 유형 중 원인의 소재(locus)에 따라 나뉘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지문은 친구의 사업 실패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원인을 행위자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 경우와 상황·환경에서 찾는 경우를 대비시켜 보여 준다.

핵심 개념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은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 개인의 능력, 성격, 노력, 수완 등 개인 내부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다. 외적 귀인(external attribution)은 원인을 경기 상황, 운, 타인의 방해, 환경적 여건 등 행위자 외부의 요인에서 찾는 것이다. 이 내적-외적 구분은 와이너(Weiner)의 귀인이론에서 원인의 소재를 나누는 기본 축이다. 한편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성향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을 가리키는 별도의 개념이며, 방어적 귀인(defensive attribution)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자기방어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귀인을 가리킨다. 두 개념 모두 이 지문이 대비시키는 '원인을 개인 특성에서 찾는가, 상황에서 찾는가'라는 축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기본적 귀인 / 방어적 귀인: X — 기본적 귀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귀인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며(기본적 귀인 오류는 편향 현상이지 원인 소재의 한 유형이 아니다), 방어적 귀인 역시 책임 회피라는 자기방어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단순히 불경기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② 방어적 귀인 / 기본적 귀인: X — ①과 같은 이유로 두 용어 모두 지문이 대비시키는 내적-외적 원인 소재 구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내적 귀인 / 외적 귀인: O — (가)에서는 친구의 사업 수완 부족, 즉 개인의 능력이라는 내부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하므로 내적 귀인이고, (나)에서는 불경기, 즉 행위자 외부의 경제 상황을 원인으로 지목하므로 외적 귀인이다. 지문의 두 서술이 정확히 원인의 소재가 개인 내부인가 외부인가로 갈리므로 이 조합이 옳다.
④ 외적 귀인 / 내적 귀인: X — (가)와 (나)의 원인 소재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가)는 개인의 수완 부족(내적)을, (나)는 불경기(외적)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순서가 반대다.

오답 포인트

기본적 귀인(오류)과 방어적 귀인은 모두 귀인 관련 개념이지만, 이 문항이 요구하는 '원인이 개인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라는 소재 구분과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가)와 (나)의 내용을 반대로 연결해 내적-외적을 뒤바꾸는 실수도 흔하므로, 어느 문장이 개인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지, 어느 문장이 환경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원인으로 제시된 대상이 행위자 개인의 능력·성격·노력 등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운·타인·환경 등 '그 사람 밖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개인 특성이 원인으로 제시되면 내적 귀인, 상황·환경 요인이 원인으로 제시되면 외적 귀인으로 연결하고, 기본적 귀인 오류나 방어적 귀인처럼 별도의 편향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내적 귀인=원인이 개인 안에(능력·노력·수완), 외적 귀인=원인이 개인 밖에(경기·운·환경)로 짝지어 기억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는 '상황을 무시하고 남 탓 대신 성향 탓을 과하게 하는 편향', 방어적 귀인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귀인'으로 서로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15. (가) ~ (라)의 성격 5요인에 대한 설명과 A ~ E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교양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나)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타인을 배려하고 관대하고 양보하며 인내심이 크다.
(다)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과 관련된다. 감정 기복이 크게 드러날 수 있고,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극되며 불안이나 우울함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라)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성향과 관련된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며 꾸준하고 믿을 수 있다.
A.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B. 성실성(conscientiousness)
C. 신경증적 경향(neuroticism)
D. 우호성(agreeableness)
E. 외향성(extraversion)

① (가): A, (나): D, (다): C, (라): B
② (가): A, (나): D, (다): E, (라): B
③ (가): A, (나): E, (다): C, (라): B
④ (가): D, (나): E, (다): A, (라): C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성격 5요인(Big Five: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적 경향) 각각의 핵심 정의와 대표 행동 특징을 구분해 서술형 설명과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유사해 보이는 우호성과 외향성, 성실성과 신경증적 경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핵심 정리

개방성(A)은 호기심, 상상력, 새로운 경험과 지식·교양 추구가 핵심이다.
성실성(B)은 책임감, 계획성, 목표 완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태도가 핵심이다.
신경증적 경향(C)은 불안, 우울, 감정 기복,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핵심이다.
우호성(D)은 타인에 대한 배려, 관대함, 양보,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가 핵심이다.
외향성(E)은 사교성, 활동성, 자극 추구, 긍정 정서 표출이 핵심이며 지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적 상상력을 설명하므로 개방성(A)에 해당한다.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관대하며 양보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설명하므로 우호성(D)에 해당한다. 외향성(E)의 사교성·활동성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는 불안, 우울, 감정 기복, 사소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설명하므로 신경증적 경향(C)에 해당한다.
(라)는 사회적 규칙 준수, 책임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수행을 설명하므로 성실성(B)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나)-(다)-(라)는 A-D-C-B로 연결되며, 이는 ①과 일치한다.
①은 (가)A, (나)D, (다)C, (라)B로 모두 옳게 연결되어 정답이다.
②는 (다)를 외향성(E)으로 연결해 신경증적 경향(C)과 바꿔 놓았으므로 틀리다. 감정 기복과 불안·우울은 외향성이 아니라 신경증적 경향의 특징이다.
③은 (나)를 외향성(E)으로 연결해 우호성(D)과 바꿔 놓았으므로 틀리다. 배려·관대함·양보는 외향성이 아니라 우호성의 특징이다.
④는 (가)를 우호성(D), (나)를 외향성(E), (다)를 개방성(A), (라)를 신경증적 경향(C)으로 전부 어긋나게 연결했으므로 틀리다.

오답 포인트

우호성과 외향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호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협조적인가'를 묻고, 외향성은 '자극과 사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구하는가'를 묻는 서로 다른 축이다. 또한 성실성과 신경증적 경향도 겉보기에 둘 다 '태도'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 혼동할 수 있으나, 성실성은 목표 지향적 행동 특성이고 신경증적 경향은 정서적 안정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대인관계·배려·양보' 키워드가 나오면 우호성, '사교·활동성·자극 추구'가 나오면 외향성으로 즉시 구분한다. '불안·우울·감정 기복'은 신경증적 경향, '책임감·계획성·목표 완수'는 성실성으로 바로 연결한다. 다섯 요인 중 어떤 키워드가 지문에 등장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오답 선지에서 잘못 끼워 넣은 요인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격 5요인 약칭 OCEAN(개방성-성실성-외향성-우호성-신경증적 경향)으로 다섯 요인을 순서대로 외워 두고, 각 요인의 한 단어 핵심(개방성=호기심, 성실성=책임감, 외향성=사교성, 우호성=배려, 신경증적 경향=정서불안정)을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6. 다음 정서 경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자, 그 순간 근육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린 후 강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① 캐논-바드(Cannon-Bard) 이론
② 제임스-랑게(James-Lange) 이론
③ 제이온스(Zajonc) 이론
④ 샤흐터(Schachter) 이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서의 발생 순서에 관한 고전 이론들(제임스-랑게, 캐논-바드, 샤흐터의 2요인, 제이온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자극(수상한 소리) 이후 먼저 신체 반응(근육 긴장, 심장 두근거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서(두려움)를 경험했다고 순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순서 구조를 어느 이론이 설명하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제임스-랑게 이론은 자극이 먼저 신체적/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신체 반응을 뇌가 지각하고 해석함으로써 정서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순서는 자극 → 신체 반응 → 정서 경험이다. 이에 반해 캐논-바드 이론은 자극이 시상에서 대뇌피질과 신체(자율신경계)로 동시에 전달되어 정서 경험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신체 반응이 정서보다 먼저가 아님). 샤흐터의 2요인 이론은 신체적 각성과 그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귀인)이 함께 있어야 정서가 결정된다고 보며, 같은 각성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정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이온스는 정서가 인지적 평가 없이도 즉각적으로, 인지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인지의 필수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캐논-바드 이론은 신체 반응과 정서 경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라 제시문처럼 신체 반응(긴장, 두근거림)이 먼저 나오고 정서(두려움)가 뒤따르는 순서를 설명하지 못한다. X
② 제임스-랑게 이론은 자극에 대해 신체가 먼저 반응하고(근육 긴장, 심장 두근거림), 그 신체 반응을 지각함으로써 비로소 정서(두려움)를 경험한다고 설명하므로 제시문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O
③ 제이온스 이론은 정서가 인지적 해석 없이도 매우 빠르고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신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정서로 이어진다는 제시문의 순서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X
④ 샤흐터의 2요인 이론은 신체적 각성에 더해 그 원인에 대한 인지적 해석(귀인)이 함께 작용해야 정서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제시문처럼 신체 반응만으로 곧바로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이어지는 단순한 순서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X

오답 포인트

캐논-바드 이론과 제임스-랑게 이론을 혼동하기 쉬운데, 둘의 차이는 신체 반응과 정서 경험의 시간적 순서에 있다. 제임스-랑게는 신체 반응이 먼저이고 정서가 나중이며, 캐논-바드는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 또한 샤흐터의 2요인 이론은 신체적 각성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 반응만으로 정서가 결정되는 제시문의 단순한 순서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신체 반응(생리적 각성)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정서 경험이 온다는 시간적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면 제임스-랑게 이론을 우선 떠올린다. 반대로 신체 반응과 정서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면 캐논-바드 이론이고, 같은 신체적 각성이라도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른 정서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으면 샤흐터의 2요인 이론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제임스-랑게=신체 반응이 먼저, 정서는 나중(신체 반응의 지각이 곧 정서). 캐논-바드=신체 반응과 정서가 동시. 샤흐터 2요인=신체적 각성+인지적 해석이 함께 정서를 결정. 제이온스=정서가 인지적 해석 없이도 즉각 발생 가능.

NoteBase

문 17.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당성 검증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검자의 수검태도와 거짓반응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이론보다는 증거에 기반하여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검사이다.

③ 수검자의 임상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④ 사고, 감정, 행동에 관한 주관적인 정보를 수검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응답에 대해 검사시행자의 별도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제작 방식과 검사 결과 채점·해석 방식이 자기보고식 객관적 검사의 특성과 부합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MMPI는 자기보고식 질문지형 검사이면서도 표준화된 채점 규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채점되는 객관적 검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MMPI는 경험적 준거방법(문항이 실제로 특정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변별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이다. 타당도 척도(L, F, K 등)를 두어 수검자가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했는지, 왜곡·꾀병·방어적 태도 등이 있는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임상척도 점수를 통해 우울, 불안, 편집증적 경향 등 임상적 문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다만 채점은 정해진 채점표와 규준(T점수 환산 등)에 따라 기계적·정량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사시행자가 응답 하나하나에 대해 별도의 주관적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핵심인 로르샤흐 검사나 주제통각검사(TAT) 같은 투사적 검사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MMPI에는 L, F, K 등 타당성(타당도)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 수검자가 검사에 임한 태도, 즉 지나치게 좋게 보이려는 태도나 거짓반응, 무선반응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 O — MMPI는 이론적으로 문항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 문항이 특정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실제로 변별하는지를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선정한 경험적 준거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검사이다.
③ O — 임상척도(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편집증 등)를 통해 수검자가 겪고 있는 임상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X — 사고, 감정,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검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MMPI는 표준화된 채점 방식에 따라 문항 응답을 규준에 맞춰 정량적으로 채점하는 객관적 검사이므로 응답 하나하나에 대해 검사시행자의 별도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 "검사시행자의 별도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표준화된 채점 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점된다"가 되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MMPI의 실제 특성(타당도 척도 존재, 경험적 제작, 임상적 정보 제공)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는 자기보고식이라는 응답 방식의 특징과,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채점에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수검자 본인이 직접 응답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집중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검사시행자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MMPI의 객관적 채점 방식과 모순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주관적 해석', '검사자의 판단', '숙련된 임상가의 직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 검사가 로르샤흐, TAT처럼 투사적 검사인지, 아니면 MMPI처럼 표준화된 채점표로 채점하는 객관적 검사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객관적 성격검사에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서술이 붙어 있으면 옳지 않은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MPI = 자기보고식 + 경험적 제작(이론이 아닌 통계적 변별력) + 타당도 척도(수검태도 파악) + 임상척도(임상적 문제 파악) + 표준화된 채점 규준에 따른 객관적 채점(검사자의 주관적 해석 불요). 투사적 검사(로르샤흐, TAT 등)만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8. 대뇌피질 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두엽: 가장 앞쪽 부분인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은 의사결정, 계획, 상황 판단, 정서 조절 등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

② 두정엽: 베르니케(Wernicke)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영역에 손상이 생기면 언어이해의 장애가 발생한다.

③ 측두엽: 일차청각피질(primary auditory cortex)이 있으며 청각 정보를 분석한다.

④ 후두엽: 이 영역이 손상되면 눈에 이상이 없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대뇌피질의 네 엽(전두엽·두정엽·측두엽·후두엽) 각각이 담당하는 대표 기능과 그 안에 위치한 주요 영역을 정확히 짝짓는 문제이다. 특히 언어와 관련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각각 어느 엽에 속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개념

전두엽은 이마 쪽에 위치하며 그중 가장 앞쪽인 전전두피질은 의사결정, 계획 수립, 상황 판단, 정서 조절 등 고차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 두정엽은 정수리 쪽에 위치하며 촉각·압각·온도 등 체감각 정보의 처리와 공간 지각을 담당한다. 측두엽은 귀 옆쪽에 위치하며 일차청각피질이 있어 청각 정보를 분석하고,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도 측두엽(우세 반구 기준 좌측 측두엽 후상부)에 위치한다. 후두엽은 뒤통수 쪽에 위치하며 일차시각피질이 있어 시각 정보를 처리하므로, 이 영역이 손상되면 눈 자체는 정상이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피질맹 증상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전두피질은 전두엽 가장 앞쪽에 위치하며 의사결정, 계획, 상황 판단, 정서 조절 등 고차적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 베르니케 영역은 두정엽이 아니라 측두엽에 위치한 언어 이해 관련 영역이다. 두정엽은 체감각 처리와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부위이므로 베르니케 영역을 두정엽 소속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두정엽: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 → 올바른 표현 '측두엽: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
③ O - 측두엽에 일차청각피질이 있어 청각 정보를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 후두엽이 손상되면 안구 자체는 정상이어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피질맹 증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언어 관련 두 영역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전두엽·측두엽이 아닌 다른 엽으로 잘못 배치하는 함정에 주의한다. 브로카 영역(말하기 산출)은 전두엽, 베르니케 영역(언어 이해)은 측두엽에 위치한다는 점을 혼동하면 이런 유형의 오답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특정 영역(브로카, 베르니케, 일차운동피질, 일차감각피질, 일차시각피질, 일차청각피질 등)의 이름이 나오면 먼저 그 영역이 어느 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소속 엽이 틀리게 짝지어져 있으면 기능 설명이 맞아 보여도 그 선지 전체가 틀린 설명이 된다.

암기 포인트

전두엽-전전두피질(고차 인지)·브로카 영역(언어 산출), 두정엽-체감각·공간 지각,
측두엽-일차청각피질·베르니케 영역(언어 이해), 후두엽-일차시각피질(시각 처리, 손상 시 피질맹)로 네 엽과 대표 기능·영역을 한 세트로 묶어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9. 제품 구매 후 인지부조화가 나타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잘못 구매한 제품에 따른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통해 구매를 취소한다.
ㄴ. “그래도 이거 친환경 제품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
ㄷ. 구매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더 높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더 낮게 평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지부조화이론은 사람이 서로 모순되는 인지(신념·태도·행동)를 동시에 지닐 때 불편한 긴장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행동을 바꾸거나 새로운 인지를 추가하거나 기존 인지의 중요성·평가를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문제는 ㄱ~ㄷ의 각 대응 방식이 이러한 부조화 감소 기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것을 묻는다.

핵심 개념

인지부조화 감소의 대표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행동 변경(behavior change) — 부조화를 일으킨 행동 자체를 되돌리거나 취소하는 것이다. 둘째, 인지 추가(adding consonant cognitions) — 부조화를 상쇄할 새로운 긍정적 인지를 더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적 노출과 평가(selective exposure/evaluation) — 이미 내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보는 과대평가하고 반대하는 정보는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세 가지 모두 인지부조화이론이 제시하는 부조화 해소 전략에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ㄱ. O — 잘못 구매한 제품의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교환·환불로 구매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조화를 일으킨 행동을 직접 되돌리는 행동 변경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부조화 감소의 기본 방식 중 하나이다.
ㄴ. O — "그래도 이거 친환경 제품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구매 선택과 상충하는 인지(예: 가격이 비쌌다, 성능이 아쉽다 등)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인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인지 추가를 통한 부조화 감소에 해당한다.
ㄷ. O — 구매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정보는 더 높게, 부정적 정보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이미 내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택적 평가로, 인지부조화이론이 설명하는 사후 정당화(post-decision justification) 현상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틀리기 쉬운 지점은 ㄱ을 단순한 "환불 행위"로만 보고 인지부조화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조화 해소는 반드시 인지적 정당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행동 자체를 취소해 부조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엄연히 인지부조화 감소의 한 방식이다. ㄱ, ㄴ, ㄷ이 각각 행동 변경·인지 추가·선택적 평가라는 서로 다른 기제를 대표하고 있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일부만 답으로 고르는 오류(①②③)를 범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지부조화 관련 사례 제시형 문제가 나오면, 각 보기를 먼저 "행동을 바꿨는가", "새로운 인지를 추가했는가", "기존 선택에 유리하게 정보를 재평가했는가" 세 기준에 대입해 분류한다. 세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지부조화이론의 설명과 일치하는 사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지부조화 감소의 3대 기제 — 행동 변경(취소·교환), 인지 추가(합리화할 새 정보 더하기), 선택적 평가(내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는 과대평가, 반대 정보는 과소평가) — 를 세트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20. (가), (나)의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A가 실직자가 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 하지만 아마도 그 친구의 적응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나도 최근 정리해고되기는 했는데 그건 우리 업계가 워낙 불안정해서 그런 거고.
(나) 휴양지 백화점 명품관에 갔더니 다들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나도 선글라스를 쓰고 돌아다녔어.

① (가): 편견, (나): 규범적 동조
② (가): 편견, (나): 정보적 동조
③ (가): 행위자-관찰자 편향, (나): 규범적 동조
④ (가): 행위자-관찰자 편향, (나): 정보적 동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가)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서로 다른 원인으로 귀인하는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나)는 겉으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동조가 어떤 동기(정보 획득 vs 소외 회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두 사례 모두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개념 중 정확한 쪽을 골라내야 한다.

핵심 개념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같은 사람이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성격 같은 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동일한 행동은 상황·환경 같은 외적 요인으로 서로 다르게 귀인하는 현상이다. 이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타인 전반에 대해 성급하게 내적 특성을 단정하는 편견과는 다르다: 편견은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태도 자체를 가리키고,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동일 유형의 행동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귀인 방향이 바뀌는 비교 구조를 가리킨다.
규범적 동조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보가 맞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집단에 맞추기 위해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정보적 동조는 상황이 모호해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올바른 정보로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 편견, (나) 규범적 동조 → (나)는 맞지만 (가)는 편견이 아니라 행위자-관찰자 편향이므로 전체 연결은 틀렸다. 화자는 친구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실직이라는 사건을 두고 친구에게는 내적 원인(적응력), 자신에게는 외적 원인(업계 불안정)을 각각 다르게 붙였다.
② (가) 편견, (나) 정보적 동조 → (가)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 선글라스를 쓴 이유는 명품관에서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몰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쓰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남들 시선에 맞춘 것이므로 정보적 동조가 아니라 규범적 동조에 해당한다.
③ (가) 행위자-관찰자 편향, (나) 규범적 동조 → 옳다. (가)는 친구의 실직은 그의 적응력(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실직은 업계 불안정(외적 요인)으로 귀인한 전형적인 행위자-관찰자 편향이고, (나)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남들 행동에 맞춘 규범적 동조이다.
④ (가) 행위자-관찰자 편향, (나) 정보적 동조 → (가)는 맞지만 (나)가 틀렸다. 선글라스 사례에는 '무엇이 맞는 행동인지 몰라서 정보를 얻으려는' 모습이 없고, 단지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만 나타나므로 정보적 동조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가)를 편견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친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인데, 편견은 특정 대상에 대한 고정된 부정적 태도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같은 사건을 남의 일과 내 일로 나누어 다르게 설명한다'는 비교 구조이므로 행위자-관찰자 편향으로 봐야 한다. (나)를 정보적 동조로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길래'라는 표현 때문인데, 정보적 동조는 옳고 그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의 행동을 정보로 삼는 것이고, 이 사례는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상하게 보이기 싫어서' 맞춘 것이므로 규범적 동조가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나(자신)'와 '타인'의 같은 유형 사건이 동시에 등장하고 귀인의 방향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으면 행위자-관찰자 편향을 의심한다. 동조 사례에서는 '몰라서 따라 했다(정보 부족)'인지 '남들 눈이 무서워서 따라 했다(소외 회피)'인지를 문장에서 구분해 정보적 동조와 규범적 동조를 가른다.

암기 포인트

행위자-관찰자 편향: 남 탓은 내적(성격·능력), 내 탓은 외적(상황·환경). 규범적 동조는 '보이는 것' 때문에, 정보적 동조는 '몰라서' 따라 한다.

NoteBase

문 21. 실험연구에서 실험참가자가 실험목적이나 연구가설을 추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은?

① 위약 효과(placebo effect)

② 연구자 편향(researcher bias)

③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

④ 관찰자 편향(observer bia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실험참가자가 실험목적이나 연구가설이 무엇인지 스스로 추측한 뒤, 그 추측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맞춰 나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이는 실험참가자 쪽에서 발생하는 반응성(reactivity) 문제로, 연구자나 관찰자 쪽에서 발생하는 편향들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은 실험참가자가 실험 상황의 여러 단서(실험 절차, 지시문, 실험자의 태도 등)로부터 연구가설이나 기대되는 반응을 추측하고, 그 추측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경향을 뜻한다. 이는 참가자 스스로가 '좋은 피험자'가 되려 하거나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며, 실험 결과의 타당도를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 위약 효과는 실제 처치가 없어도 처치를 받았다는 믿음만으로 나타나는 반응 변화이고, 연구자 편향과 관찰자 편향은 참가자가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 쪽에서 기대나 선입견이 결과 해석·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위약 효과(placebo effect) — X.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처치(가짜 약, 가짜 처치)를 받았음에도 처치를 받았다는 믿음 자체로 인해 참가자에게 실제 반응(증상 완화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험목적을 추정해 행동을 맞추는 것과는 다르다.

② 연구자 편향(researcher bias) — X. 연구자가 자신의 가설이나 기대에 따라 실험을 설계·진행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행동의 주체가 참가자가 아니라 연구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 — O. 참가자가 실험목적이나 연구가설을 스스로 추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정확히 가리키는 용어이다.

④ 관찰자 편향(observer bias) — X. 행동을 기록·평가하는 관찰자가 자신의 기대나 선입견에 따라 관찰 결과를 왜곡하여 판단하는 현상이다. 관찰자 쪽의 오류이지 참가자의 행동 조정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누구의 기대·추측이 원인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자 자신의 추측에서 비롯되면 요구 특성, 연구자의 기대·해석에서 비롯되면 연구자 편향, 관찰자의 기록·평가 과정에서 비롯되면 관찰자 편향, 실제 처치 없이 믿음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면 위약 효과로 구분한다. 네 개념 모두 '기대'와 관련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행동을 조정하는 주체가 실험참가자인지, 연구자인지, 관찰자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주체가 참가자이고 그 원인이 실험목적·가설에 대한 추측이라면 요구 특성이며, 처치의 진위와 무관하게 믿음만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면 위약 효과, 주체가 연구자나 관찰자라면 각각 연구자 편향·관찰자 편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요구 특성 = 참가자가 실험목적을 눈치채고 거기에 맞춰 행동함, 위약 효과 = 가짜 처치인데도 믿음으로 실제 반응이 나타남, 연구자 편향 = 연구자의 기대가 실험 진행·해석에 영향, 관찰자 편향 = 관찰자의 기대가 기록·평가에 영향으로 각각 구분해 외워 둔다.

NoteBase

문 22.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왼손으로 먼저 왼쪽 눈을 가린다. 오른손 엄지를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오른쪽 눈으로 엄지 너머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본다. 재빠르게 왼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본다. 이때 움직이지도 않았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움직인 것같이 보인다.

① 양안 부등(binocular disparity)

② 수렴(convergence)

③ 선형조망(linear perspective)

④ 파이 현상(phi-phenomen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깊이 지각(depth perception) 단서 중에서도 두 눈의 위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단서와, 한쪽 눈만으로도 성립하는 단안 단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상황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같은 엄지손가락과 배경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눈을 바꿔 뜨는 순간 엄지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 갑자기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두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의 위치 차이가 클수록 이 겉보기 이동 폭도 커지므로, 이는 양쪽 눈의 시야 차이 자체를 이용한 깊이 단서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양안 부등(binocular disparity)은 두 눈이 약 6~7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고, 그 결과 두 망막에 맺히는 상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다. 가까운 물체일수록 두 눈이 보는 각도 차이가 커져서 어긋남도 커지고, 이 어긋남의 크기를 뇌가 거리 정보로 활용한다.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았다 떴다 하면 가까운 물체(엄지)가 먼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좌우로 튀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양안 부등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면 수렴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두 눈알이 안쪽으로 모이는 근육 운동 단서이고, 선형조망은 평행한 선들이 멀어질수록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단안 단서이며, 파이 현상은 정지된 그림 여러 장을 빠르게 이어 보여줄 때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가현운동(apparent motion)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양안 부등(binocular disparity) — O.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엄지와 배경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눈을 바꿔 뜨면 엄지의 상대적 위치가 크게 달라져 보인다. 이는 두 눈 사이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대표적 양안 단서이므로 제시된 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② 수렴(convergence) — X. 수렴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출 때 두 눈알이 안쪽으로 모이는 근육 긴장 정도를 깊이 단서로 쓰는 것이다. 이 문제 상황은 한쪽 눈을 번갈아 가리는 것이므로 두 눈이 동시에 수렴할 필요가 없고, 근육 긴장이 아니라 두 눈의 관찰 각도 차이가 핵심이므로 맞지 않는다.
③ 선형조망(linear perspective) — X. 선형조망은 기찻길처럼 평행한 선이 멀리 갈수록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단안 단서로, 하나의 눈으로도 성립하는 그림 속 단서이다. 제시된 현상은 두 눈을 번갈아 사용해야만 나타나므로 단안 단서인 선형조망과는 관련이 없다.
④ 파이 현상(phi-phenomenon) — X. 파이 현상은 정지된 자극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 제시할 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가현운동이다. 제시된 상황은 실제 눈의 위치가 바뀌면서 생기는 상의 어긋남이지, 정지 자극의 순차 제시로 인한 착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눈을 움직인다'는 표현만 보고 수렴이나 안구 운동과 관련된 단서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안구가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아니라, 왼쪽 눈으로 볼 때와 오른쪽 눈으로 볼 때 엄지가 배경에 대해 놓이는 위치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두 눈이 동시에 보는 상의 차이(양안 부등)를 순차적으로 체험하게 만든 시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깊이 단서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한쪽 눈만으로 되는가, 두 눈이 필요한가'부터 구분한다. 두 눈의 위치 차이 자체가 핵심이면 양안 부등, 안구 근육의 긴장도가 핵심이면 수렴, 하나의 그림·사진 안에서 성립하면 선형조망이나 결 기울기 같은 단안 단서, 정지 자극의 순차 제시로 움직임이 지각되면 파이 현상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엄지손가락 튀어 보이기 시연 = 양안 부등(binocular disparity), 눈 모이는 근육 긴장 = 수렴(convergence), 평행선이 한 점으로 모임 = 선형조망(linear perspective), 정지 그림의 순차 제시로 생기는 착시 운동 = 파이 현상(phi-phenomenon)으로 짝지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23. (가), (나)에 들어갈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톨만(Tolman)은 미로 연구를 통해 동물이 공간에 대해 정신적인 지도, 즉 (가)를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쥐를 먹이가 없는 미로를 돌아다니게 하는 실험을 하였고, 쥐는 미로를 탐색하는 동안 (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① (가): 인지도, (나): 강화학습

② (가): 인지도, (나): 잠재학습

③ (가): 조직도, (나): 강화학습

④ (가): 조직도, (나): 잠재학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톨만(Tolman)의 목적적 행동주의(잠재학습 실험)에서 핵심 개념인 인지도와 잠재학습을 정확히 구분해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톨만은 쥐가 강화(먹이) 없이도 미로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공간 배치에 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며, 이 학습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강화가 주어지면 수행에 갑자기 반영된다는 점을 보였다.

핵심 정리

인지도(cognitive map)는 톨만이 제안한 개념으로, 유기체가 환경을 탐색하면서 형성하는 공간에 대한 정신적 표상, 즉 미로 전체의 경로와 배치에 관한 내적 지도를 의미한다. 잠재학습(latent learning)은 학습이 일어났지만 강화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습을 말하며, 톨만의 실험에서 먹이 없이 미로를 돌아다니던 쥐 집단이 이후 먹이가 주어지자 곧바로 오류를 줄이며 목표 지점을 빠르게 찾아간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되었다. 강화학습은 특정 반응에 강화(보상)가 뒤따를 때 그 반응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손다이크·스키너 계열의 개념으로, 학습 성립에 강화가 필수라고 보는 입장이라 톨만의 잠재학습 개념과 대비된다. 조직도라는 용어는 톨만의 이론에서 공간 표상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 인지도 / (나) 강화학습 → (가)는 맞지만 (나)가 틀렸다. 톨만의 실험에서 쥐는 먹이라는 강화 없이 미로를 탐색하는 동안에도 공간에 대한 학습을 이미 이루었으므로, 이는 강화학습이 아니라 잠재학습에 해당한다.
② (가) 인지도 / (나) 잠재학습 → 모두 옳다. 쥐는 미로를 탐색하며 정신적인 지도인 인지도를 형성하고, 이 학습은 강화가 없는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후 먹이가 주어지면서 비로소 수행에 반영되는 잠재학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③ (가) 조직도 / (나) 강화학습 → 둘 다 틀렸다. 톨만이 제시한 공간 표상 개념은 인지도이지 조직도가 아니며, 먹이 없이 형성된 학습이므로 강화학습으로 볼 수 없다.
④ (가) 조직도 / (나) 잠재학습 → (나)는 맞지만 (가)가 틀렸다. 톨만의 실험에서 획득되는 정신적인 지도를 가리키는 용어는 인지도이며, 조직도는 이 문맥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인지도와 조직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톨만이 제안한 공간 표상 개념의 정식 명칭은 인지도이며, 조직도는 이 실험 및 이론과 관련이 없는 용어다. 또한 강화학습과 잠재학습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습이 일어난 시점과 그 학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톨만의 실험에서는 강화가 없던 기간에도 학습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잠재학습 개념의 근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톨만, 미로, 먹이 없는 조건, 이후 갑작스러운 수행 향상이 함께 제시되면 잠재학습과 인지도 개념을 묻는 문제로 판단한다.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서술이 있으면 강화학습 계열의 선지는 바로 제외하고, 공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인지도만 정답 후보로 남긴다.

암기 포인트

톨만=인지도+잠재학습으로 묶어 기억한다. 강화 없이 학습되지만 강화가 주어져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잠재학습의 핵심이며, 그 학습 내용의 실체가 바로 인지도라는 공간에 대한 정신적 지도다.

NoteBase

문 24. 인지 발달에 대한 피아제(Piaget)와 비고츠키(Vygotsky)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① 피아제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에서 얻는 구체적인 지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② 피아제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은 근접발달 영역 내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③ 비고츠키는 아동이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비고츠키는 아동이 사적 언어(혼잣말)를 활용해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이 서로 어떤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두 이론가의 핵심 개념(문화적 도구, 근접발달영역, 독립적 발견학습, 사적 언어)을 뒤바꿔 제시하는 함정이 선지마다 들어 있어, 각 개념이 원래 누구의 주장인지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아제는 아동이 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도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았고, 발달은 보편적인 단계(감각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조작기·형식적조작기)를 따라 진행되며 특정 문화의 지적 기술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인지 구조의 성숙을 강조했다. 반면 비고츠키는 인지발달이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근접발달영역(현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학습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고츠키는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적 언어(혼잣말)가 사고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기능하여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얻는 구체적인 지적 기술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피아제는 문화적 특수성보다 모든 아동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발달 단계와 생물학적 성숙을 강조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X: 상호작용이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비고츠키의 개념이지 피아제의 주장이 아니다. 피아제는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며 인지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중시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③ X: 아동을 독립적인 활동에 내버려 두어야 학습이 된다는 것은 비고츠키가 아니라 피아제 이론에 가까운 서술이며, 그마저도 비고츠키의 입장과는 반대된다. 비고츠키는 오히려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적극적인 개입과 안내(스캐폴딩)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달의 핵심 동력으로 보았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④ O: 비고츠키는 아동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적 언어(혼잣말)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여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고츠키 이론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진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핵심 개념(문화적 지적 기술, 근접발달영역, 독립적 발견학습, 사적 언어)을 서로 뒤바꿔 제시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판다. 개념 자체는 익숙해도 그 개념이 원래 누구의 이론에서 나온 것인지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되므로, 개념과 이론가를 한 쌍으로 묶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근접발달영역', '사적 언어', '스캐폴딩', '사회문화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비고츠키, '보편적 단계', '동화·조절', '평형화', '생물학적 성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피아제로 즉시 연결해 짝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이론가 이름과 개념이 어긋나 있으면 그 선지는 틀린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기 포인트

피아제=혼자 구성(보편적 단계, 생물학적 성숙), 비고츠키=함께 구성(근접발달영역, 스캐폴딩, 사적 언어)으로 대비해 암기해 둔다.

NoteBase

문 25. (가) ~ (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P는 시험을 위해 고려 시대 왕을 즉위 순서대로 열심히 암기했다. 한 시간 뒤, 조선 시대 왕을 암기하다 보니 고려 시대 왕의 이름과 비슷하여 혼동되었다.
(나) 다음날, 고려 시대 왕을 순서대로 쓰는 서술형 시험에서 초기 왕은 잘 생각났지만, 중후기 왕의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았다.
(다) 며칠 뒤, 시험문제를 다시 보면서 고려 시대 왕을 암기하는데, 처음과 비교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① (가) 순행간섭, (나) 초두효과, (다) 절약률
② (가) 순행간섭, (나) 최신효과, (다) 암묵기억
③ (가) 역행간섭, (나) 초두효과, (다) 암묵기억
④ (가) 역행간섭, (나) 최신효과, (다) 절약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세 상황 (가)~(다)를 기억 관련 개념(간섭 이론, 계열위치효과, 절약법)에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각 상황에서 무엇이 무엇을 방해했는지, 어느 시점의 항목이 잘 기억되었는지, 무엇을 측정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순행간섭(proactive interference)은 먼저 학습한 내용이 나중에 학습하는 내용의 기억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역행간섭(retroactive interference)은 나중에 학습한 내용이 먼저 학습한 내용의 기억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목록의 앞부분 항목이 뒷부분 항목보다 더 잘 회상되는 현상으로 앞부분 항목이 장기기억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최신효과(recency effect)는 반대로 목록의 뒷부분 항목이 더 잘 회상되는 현상으로 단기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절약률(savings score)은 에빙하우스의 재학습법에서, 처음 학습할 때 걸린 시간(또는 시행 수)과 재학습할 때 걸린 시간의 차이를 처음 학습 시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억 흔적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암묵기억(implicit memory)은 의식적 회상 없이 수행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으로 절약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가) 순행간섭 / (나) 초두효과 / (다) 절약률 → 모두 옳다. (가)는 먼저 암기한 고려 왕(선행 학습)이 나중에 암기하는 조선 왕(후행 학습)의 기억에 혼동을 일으킨 경우이므로 순행간섭에 해당한다. (나)는 순서대로 암기한 목록에서 초기 항목은 잘 회상되고 중후반 항목은 잘 회상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초두효과에 해당한다. (다)는 동일한 내용을 재학습할 때 처음보다 시간이 줄어든 것을 측정한 것이므로 절약률에 해당한다.
② (가) 순행간섭은 옳으나 (나) 최신효과, (다) 암묵기억은 틀린 표현이다. (나)에서 잘 생각난 것은 목록의 초반부이므로 최신효과가 아니라 초두효과이며, (다)는 회상이 아니라 재학습 소요 시간의 감소를 측정한 절약률이지 암묵기억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③ (가) 역행간섭, (나) 초두효과, (다) 암묵기억 → (나)는 옳으나 (가), (다)가 틀렸다. (가)는 나중 학습(조선 왕)이 아니라 먼저 학습한 고려 왕이 나중 학습을 방해한 것이므로 역행간섭이 아니라 순행간섭이다. (다)는 암묵기억이 아니라 절약률로 측정된 것이다.
④ (가) 역행간섭, (나) 최신효과, (다) 절약률 → (다)만 옳고 (가), (나)는 틀렸다. (가)는 역행간섭이 아니라 순행간섭이며, (나)는 최신효과가 아니라 초두효과이다.

오답 포인트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은 방해의 방향을 반대로 헷갈리기 쉽다. 먼저 배운 것이 나중 것을 방해하면 순행간섭, 나중에 배운 것이 먼저 것을 방해하면 역행간섭이라는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도 반대로 착각하기 쉬운데, 앞부분이 잘 기억나면 초두효과, 뒷부분이 잘 기억나면 최신효과이다. 절약률과 암묵기억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절약률은 재학습 시간의 감소를 통해 잔존 기억을 수치화한 지표이고 암묵기억은 의식적 회상 없이 나타나는 수행상의 영향을 뜻하므로 (다)의 사례처럼 재학습 시간 단축을 직접 측정한 경우는 절약률이라는 용어로 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섭 문제가 나오면 먼저 어떤 학습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학습이 나중에 일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나중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순행간섭, 먼저 학습한 것의 회상을 방해하는 것이 역행간섭임을 적용한다. 계열위치 문제가 나오면 어느 위치의 항목이 잘 기억되었는지(앞=초두, 뒤=최신)를 확인한다. 재학습 시간이나 시행 수의 감소가 언급되면 절약률 개념을 떠올린다.

암기 포인트

순행간섭: 먼저 배운 것이 나중 것을 방해(먼저→나중). 역행간섭: 나중에 배운 것이 먼저 것을 방해(나중→먼저). 초두효과: 처음 항목이 잘 기억남(장기기억 전이). 최신효과: 마지막 항목이 잘 기억남(단기기억 잔존). 절약률: 재학습 시 걸린 시간이 처음보다 줄어든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에빙하우스 절약법).

NoteBase